

은 매년 5월 18일만 되면 정치인들이나 사회단체 등이 관공버스를 동원해서 고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창하게 한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 뿐인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묘역은 해가 거듭될수록 추모객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현충일에 아파트 단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잊어져서는 안 될 '호국의 달'이 잊혀져 가고 있다.

광주 묘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국립묘지에서는 볼 수가 없다. 제 부모 영전에서는 눈물도 흘리지 않는 부류(?)들이 광주묘역에서는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면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여겨움마저 든다. 이는 정치적인 소로 보이고 눈도장을 찍기 위함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이 된 조선의원들이 광주 묘역을 참배하고 묘비를 닦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의원들이 정작 호국의 달 현충원 참배를 한 의원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나)를 위해 이 나라를 목숨으로 지킨 호국 영령들의 죽음에 그들보다도 못하다는 말인가.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것이다. 전후 세대는 6·25전쟁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그 참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친일파·미제국주의가 득세한 시대'로 여기게 만든 과정이기도 하다.

오래 전 대학 신입생에게 6월 한국전쟁에 대해 설명을 하면 "교수님 저희 선생님(전교조)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셨는데요." 전교조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미국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면서 이산가족이 생기고 나라가 분단되었다'며 미국을 철저한 원수로 만들면서 북한은 우리 동족이라고 교육을 했다.

분명 미국(미군)이 한국에 와서 전쟁을 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16개국 유엔군의 한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효순·미순 학생사건도 사고 사망 사건이건만 미군의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우리의 적이라는 식으로 충동질을 했다. 분명 과실치사임에도 살인행위로 유도, 국민감정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년 추도행사를 갖고 있다. 이들 역시 호국의 달 현충원 방문은 외면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6·25전쟁 관련한 팩트 오류를 윤 정부가 바로 잡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기막힌 '한강 인도교 폭파 및 대통령 도주'이로 인해 800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KBS가 다큐멘터리로 방영했

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무책임과 폭력성을 이미지 '메이킹'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한강 인도교 폭파로 인한 사망자는 버스로 단체 이동하던 종로경찰서 소속 공무원 77명으로 밝혀진바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덕영 감독의 다큐 '건국 전쟁'이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설부른 '800명 민간인 희생 단정'과 '건국 대통령 모욕'은 '대한민국 부정'의 논리로 쉽게 연결된다. 사고 직후 현장에 당도한 인민군 측도 사진과 기록을 남겼으나 민간인 사망 이야기는 없다. 절호의 선전 소재였음에도 말이다. 결국 김일성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 내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해낸 것이다.

동작동 국립묘지의 현충일의 출발점은 6·25전몰장병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전쟁을 통해 무수한 나라들이 생기고 또 사라졌지만 근대 이후 전쟁 승패의 핵심은 '국민의 성립 여부'다.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확립 측면에서 6·25야말로 실질적 건국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어쩔 대한민국 탄생에 따른 산고(産苦)였으니, 비극으로만 볼 건 아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군인은 명예로운 직업이다. 근래 이래 부강한 나라들의 엘리트나 귀족, 왕족들 사이에선 군무·참전의 경험이 존중된 반면,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선 군인을 '군바리'로 멸시하는 감성과 논리가 보편적이다.

그럼에도 선진국에 진입했으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곧 망한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믿는 학생 운동권에 역사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80년대 후반 행보가 '친북'지향으로 귀결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그런 편법이 어느 정도 이상 횡행하지 못한 것은 그나마 냉전체제의 특수성 덕분이었음도 모른다.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목받게 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또한 전쟁 중(휴전)인 상태로 70여년 살아온 내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평화'를 빙자해 윤 정부의 강공 태도를 비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부국강병은 국가의 기본이다. 그게 이뤄져야 '문화강국'이든 '인도주의 강소국'이든 가능해질 것이다.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윤 정부는 과거 문 정권과 달리 역사·윤리·도덕 과목을 재편성, 필수로 이수토록해서 국가관을 확실하게 주입시켜야 한다.

6·25전쟁 74주년의 발자취를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은 안보관을 가져야 할 때다.//

막 예를 갖춰 영원한 이별식을 치르고, 그의 삶을 추모하면서 기억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의 참혹함과 일상이 된 수많은 죽음 앞에서 추모 여건을 살피기가 쉽지 않다.

6·25전쟁 1129일 매 순간, 참혹한 전투 상황이 계속됐다. 유엔군 전사자 가운데 일부는 불비한 시설에서 화장 방식으로 장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영결이 수행됐던 유엔군 화장장시설이 경기도 연천군에 등록문화재 제408호로 남아 있다.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화장터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전사자들을 화장하기 위해 1952년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화장장 굴뚝만 남아 있는 상태다. 작은 구조물이지만 어떤 건물과도 대체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현재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과거 어떠한 희생으로 지켜졌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념비적 건물이기 때문이다.

전쟁기념사업회 자료에 따르면 유엔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유엔군 4만79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이 화장터에서 얼마나 많은 화장이 이뤄졌는지 정확한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다. 하지만 급박한 전세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 참혹한 전투현장에서 일부 전사자는 자신의 고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채 이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승화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순직한 자식들의 죽음 앞에 부모들은 참담한 절망의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때같은 자식이 전사했다는 내용을 서신 또는 인편으로 듣게 됐을 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 그분들의 비통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길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리라.

대한민국 국민의 헌신과 함께 자신들의 조국도 아닌 국가의 자유·평화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유엔군', 그들의 희생 덕분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경구를 명심해야 한다. 그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자유를 지키다가 전사하신 그분들이 잊히지 않기 위해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귀중한 교훈을 잃게 된다.

둘째,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숙명 같은 사명이다.//

(※ 본 내용은 국방일보 2024.6.27. 보도사항으로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일독을 권장합니다.)

##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과 탑건(Top Gun)

전대길 (주동양EMS 대표이사,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미국 조폐국에서 새로운 25센트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이 주화(鑄貨)에는 기존의 조지 워싱턴의 얼굴과 미합중국 국조(國鳥)인 독수리 문양(文樣) 대신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공군 주력 P-51 머스탱(2대)이 비행하는 장면이 배경이다.

또한 최초의 흑인(黑人) 공군부대인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 소속 전투기 조종사들의 얼굴을 담았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 명령에 따라 '터스키기 에어맨(Tuskegee Airmen)' 부대가 창설되었다.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당시에 흑인 조종사 양성을 위해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에서 비행훈련 기지를 만들고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미군 조종사는 백인(白人)만이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미군 최고위 지휘관들은 흑인들을 백인보다 열등(劣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흑인 훈련생들은 미군 내에 만연한 인종차별(人種差別)과 싸우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꿈을 키웠으며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했다. 흑인 조종사들의 전투기 꼬리 부분을 적의 눈에 잘 띄게끔 붉은색으로 도색, 적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미군 조종사의 목숨을 구했다. 'Red Tails' 또는 'Red Tail Angels'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한 터스키기 에어맨은 조종사 994명을 포함해 정비사와 지상 요원 등 무려 16,000명이었다.

이들은 북이탈리아 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 폭격기 보호와 지원 업무를 통해 빛나는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 후 공훈과 희생을 인정받은 '터스키기 에어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통령 부대 표창 등 수많은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활약은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의 마중물이 되었다.

2019년 미 공군은 '터스키기 에어맨'의 용맹(勇猛)함을 기리기 위해 차세대 고등훈련기 꼬리 날개를 붉은색으로 도색했다. 적과의 공중전(空中戰)은 물론 인종차별과 편견(偏見)이란 또 다른 싸움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창공(蒼空)을 날았던 '터스키기 에어맨'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기억되어 울림을 준다.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의 최고 영예인 탑건(Top Gun)에 관한 이야기를 적는다.

베트남전 당시의 이야기다. 미 해군은 '미사일 만능주의'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Pilot)에게 근접전(Dog Fight) 훈련에 소홀했다. 그 결과 전투기 조종사들의 희생과 기체 손실이 컸다.

"미사일을 쏘면 되지 왜 기관총이 왜 필요하나?, 왜 적의 전투기와 근접해서 전투를 벌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사일이 자주 빛나가고 접근전 상황이 되자 북베트남군 소속 미그기들에게 예상 밖의 졸전을 기록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기 1대가 미그기 적기 12대를 격추한 12:1이던 격추율이 베트남에서는 3.7:1로 떨어졌다.

따라서 미군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근접전(近接戰) 전투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했다.

1969년, 미 해군은 근접 항공전 훈련을

## 유엔군 화장터를 기억하며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전쟁이 발발하면 평상시의 생활은 사라지고 폭력과 죽음이 일상화되는 극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절실하게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한다.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군인들은 동료의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포화 속의 전장으로 나아간다. 이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 가족들을 위해서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많은 호국영령의 피와 눈물, 헌신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일반적으로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으로 세상과 이별을 하는 장례를 치르게 된다.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온 우주보다 소중한기에 우리는 가장 존엄하고 엄숙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마지

실시하고 세계 최정에 엘리트 Pilot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기관을 설립했다. <미 해군 항공단 공중전 학교(Navy Fighter Weapons School)>인 <탑건 스쿨(Top Gun School)>이다.

1996년 미 국방부의 협조로 탑건(Top Gun) 영화가 제작되었다. 실제로 미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항공기와 항공모함을 촬영하는 대가로 파라마운트 영화 제작사로부터 미 국방부가 US\$1,800,000를 받았다.

1996년 당시 '탑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미국 해군은 극장에서 '탑건'을 보고 나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징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그래서인지 미 해군을 지원하는 신병들이 자그마치 5배 이상 늘었다.

필자는 베트남전에 참전(1969~1971)한 대한민국 공군의 참전 용사다. 주월한국군 사령부 공군지원단(사이공/나트랑)에서 백마부대와 맹호부대 전투 작전을 지원하는 주월 미군야전사령부(IFFV)에서 미 공

군 항공작전담당관(G-3 Air)과 같이 합동 근무를 했다.

이때 미군이 쓰는 GI 영어를 배웠다. 많은 전투기 조종사를 만나 보았지만 <Top Gun> 전투기 조종사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미군이나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Top Gun> 칭호를 자신의 명예이며 가문의 영광(榮光)으로 삼았다. 이들의 자긍심(自矜心)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

지난 55년간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守護)해 온 공군 팬텀(F-4D) 전투기 퇴역시 이 엿그제 열렸다.

1969년 미국에서 팬텀(F-4D)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 태평양을 횡단 비행한 강신구(당시 공군작전사령부 공군 중령, 후에 장군 진급함) 편대장은 영화배우 강신성일(개명 전 강신영) 씨의 친형(親兄)이다.

필자는 공군작전사령부(전투작전처)에서 강신구 탑건(Top Gun)을 모시고 군 복무를 했다.//

## 별이 되어 살으리

이영하 (예 중장, 공사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



어린 시절, 창가에 기대어 별을 바라보던 밤들이 많았지. 무한한 우주 속 작은 존재로서, 큰 꿈을 꾸며 별들과 대화했었네.

“언젠가 나도 별이 되어 이 어둠 속에서 빛나리.”  
소망했던 그 말은 마음속 깊이 평생의 등불이 되어 주었네.

세월이 흘러, 사막으로 갔지 별 헤는 밤을 체험하러. 온 세상이 잠든 듯한 고요 속에서 별빛만이 내 가슴을 비추고 있었네.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었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인생의 순수와 꿈의 가치를.

사막의 밤하늘 아래 서서 별이 되어 살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 그것은 단순히 하늘의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가장 밝고 순수한 빛을 발하는 것.

그래, 나는 별이 되어 살으리,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희망과 사랑, 용기의 빛을 비추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

별이 되어 살으리, 내 마음속에 어린 시절 꿈꾸던 순수함을 담아 세상 모든 곳에 작은 빛을 퍼뜨리며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리.//

## 소금꽃

김완용 (예 준위, 준사관58기, 한국공무원문학협회장)



소금꽃은 바닷가 염전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피는 꽃만은 아니었다. 소금꽃은 농사철이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등에 매일 희망의 상징으로 피어나는 사랑의 꽃이기도 했다.

봄이 가면서 꽃잎 진자리에 힘차게 돌아나던 연둣빛 잎새들이 검푸른 빛을 머금으면, 하늘에서 내려놓은 태양의 열기는 대지를 달군다.

너무 더운 탓인지 마을 앞 동구나무 실가지 흔들던 바람기조차 낮잠을 청하는 시절이다. 이런 날, 가물거리는 회억(回憶)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면 자식들을 위해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모습이 떠오른다.

지평을 이루는 호남평야 들녘, 무논의 벼들이 태양의 열기를 받고 매일 키를 키울 때, 어머니는 삼베치마 끈끈 허리춤에 몰아 묶고 푹푹 땅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논바닥을 기어가며 잡초들을 걷어 냈다. 무릎 가까이 빠져드는 논바닥에 갈퀴손을 휘저어 잡초들을 걷어내 가면 땀방울은 어머니의 얼굴과 삼베적삼을 적셨다.

요즈음 농사야 벼를 심는 과정부터 수확하는 순간까지 농기계와 제초제로 수 백마지기도 한 사람이 수월하게 짓는다. 심지어 드론(drone)을 이용하여 씨를 뿌리고 농약을 살포한다. 하지만 70여 년 전만해도 모든 농사 방법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 졌다. 당시에 땅값은 상환량이 많아 그렇게 비싸지 않았지만, 농민들이 일 년 농사를 짓고 나면 정해진 상환량과 이자를 합하여 작물의 등급에 따라 수납해야 했다. 그러니 정작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어머니는 새벽장사를 다니시며 벌어들인 돈으로 무조건 싸게 내놓은 논들을 사들였다. 싸게 나온 논들은 대부분 상환량이 많이 남은 논들이었다. 상환량이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논을 관리를 하다 광복이 되어 떠났는데, 새로 수립된 이승만정부에서 현지농민들에게 쌀 가격에 나누어

주고 매년 나머지 논 값을 나누어 갚아 나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식구는 많고 먹을 것이 없는 농민들은 매년 상환량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빛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결국 농민들은 몇 푼이라도 받고 배당 받은 땅을 팔아야 했다. 어머니는 상환량이 많이 남아 값이 싼 논들을 골라 무조건 매입을 하다 보니 집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논들이 흩어져 있었다.

모든 농사가 기계화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당시에 호남평야의 시작부분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마을에는 겨울의 눈 속에서 자란 자운영이 붉게 꽃을 피우는 이른 봄이면 자운영을 베어 밀거름을 넣고 못자리를 만든다. 요즈음 농사를 짓는 시골에 가보면 여러 가구가 함께 비닐하우스에 마을 공동체로 못자리를 만들어 벼농사를 시작하지만, 당시에는 집집마다 개인 못자리판을 물길에 잘 닿는 논 어귀에 만들고, 벼가 자라는 동안 어린 벼 사이에 자라는 '피(稗)'라는 벼과의 잡초들을 수시로 뽑아내야 했다. 그래도 피는 생명력이 강해 벼를 옮겨 심은 후에도 벼 사이에 우후죽순 격으로 자라난다. 어머니는 그러한 피를 제거하지 않으면 논바닥의 거름기를 모두 피들이 빨아먹어 벼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시며 가을걷이가 되기까지 몇 차례의 피사리를 하셨다.

밭이 없는 호남평야의 논농사는 여름 내내 무논에 앞드려 잡초들과 싸워야 하는 시절이었다. 어머니는 시원한 아침과 저녁나절에 일을 해야 한다고 반복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 5남매를 둔 홀어머니의 심정은 언제나 바쁘고 고달픈 것이었음에 마음과 달리 한낮까지 농사일이 계속되었다. 어린나이에 어머니 곁에 다가가면 화장품의 향기가 없었고, 땀에 젖은 흰 냄새가 언제나 찌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삼베적삼 등판에는 고통의 흔적처럼 땀방울이 맺혀 한낮의 태양과 바람의 조화로 하얀 소금꽃이 피어있었다.

빈곤의 시절 우리 어머니가 어린 5남매를 위해 무논에 앞드려 피워낸 사랑의 꽃, 소금꽃을 농사철이 다가오면 잊을 수 없다.//



### 광주지부

광주지부(지부장 손정문)는 4월 25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이계훈 공군전우회중앙회 회장, 1전비 단장을 포함한 내빈과 지부회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공군전우회 중앙회장의 공로상(5명) 시상과 광주지부장의 감사장 시상(5명)이 있은 후 회무보고, 2023년도 결산안,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신입임원 선임에 대한 의제를 심의 의결하였으며, 광주지부장 인사말에 이어 중앙회 회장과 1전비 단장의 축사 후 만찬시간을 가졌다.

한편, 중앙회 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군전우회 광주지부에서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현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회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내면서 “군인출신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성남지회

성남지회(지회장 박문석)는 6월 21일 시내 여수동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격려차 방문한 이계훈 중앙회장과 신입회원 2명에 대한 환영식도 함께했다. 박 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영광스런 자리”라며 “우리 지회 모임에 중앙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

이라고 하면서 “지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군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평지회

양평지회(지회장 김수영)는 6월 21일 양평읍 소재 진영관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모임에는 지회원들을 비롯한 인근 관제부대장 등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오찬을 겸한 정기모임에서 회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오는 10월



가을 모임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했다.//

### 진주시회

진주시회(지회장 오기호) 4월 19일 전라남도 담양군으로 문화탐방 행사를 가졌다. 진주시회는 년1회 전 회원과 가족동반하여 봄철에 문화탐방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탐방을 통해 참가자들은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구지부

대구지부(지부장 남상석)는 7월 4일 공군전우회 중앙회와 공군군수사령부가 주관한 대구기지에서 열린 고(故) 이근석 장군 추모식에 대구지부 6·25참전유공자 위주의 회원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 워싱턴지회

워싱턴지회( 회장 한수웅)는 6월 2일 지회창립 20주년을 맞아 회원 및 가족이 부부동반하여 버지니아 애난데일 파크에서 야유회를 갖고 회원 및 가족간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 전주시회

전주시회(회장 오청수)는 4월 27일 회원 16명이 전북 고창군 선운사 및 상하농원 일대를 찾은 춘계 야유회를 갖고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졌다.//



### 창원지회

창원지회(지회장 이성배)는 6월 12일 광주지부 초청으로 회원 12명이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광주기지 체력단련장에서 광주지부 회원 18명과 함께 친선골프대회를 통한 전우애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동서하합, 친선 교류협력 강화 및 상호간의 친목을 다졌다.//



### 평택지회

평택지회(지회장 왕관현)는 5월 26일 회원가족과 함께하는 단합대회 및 야유회를 충북 제천 청풍호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며 즐겁고 유익한 힐링시간을 가졌다.//





# 회원이입 안내

## ■ 공군전우회

### △회원자격

공군에서 전역한 전 장교,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보충역,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신 모든 공군예비역분을 모십니다.

### △회원이입 절차

- 공군 현지부대에서 전역하는 장병/군무원들은 부대 인사 참모를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미 전역하신 분은 본회(중앙회) 또는 전국지회를 통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공군전우회 홈페이지 (www.airforce.ne.kr)를 통하여 가입하셔도 됩니다.

### △회원구분

구분	자격	회비
정회원	연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비 납부자	20만원(1회)
준회원	홈페이지 가입자(회비미납자)	

### ·입금안내

- 우리은행 319-260099-01-001 / 공군전우회
- 국민은행 485501-01-108707 / 공군전우회
- 지로입금 / 지로번호 : 6306588

본회 지로용지를 동봉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서는 지로용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 회지(보라매)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선별적 참가
- 재경지역 평생회원/연회원(해당년도 회비납입) 가입자 부모, 본인, 처 사망시 근조기 지원
- 10년미만 복무자 공군체력단련장 이용시 준회원 대우
- 특별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함.

### △신분별/직능별단체

단체명	회 장	사무(총)국장
공군항공고총동창회	김진홍 010-5187-3625	방정원 010-8618-4558
공군2사총동문회	김장희 010-5463-1786	김종현 010-4801-7034
공군ROTC장교회	김석찬 010-6233-7231	이상목 010-9382-1084
조종간부회	이옥희 010-4526-9856	최종환 010-6212-6644
황 성 회 (준사관)	장 군 010-5073-9424	신승진 010-5175-3051
원 우 회 (부사관)	차주성 010-3548-2893	정수일 010-5096-6150
군무원회	정화일 010-8753-6357	이 원 010-4273-7005
인터넷전우회 (로카피스)	이중근	이병권 010-5071-4763
공군통역장교회	심 건 010-9175-3886	김장환 010-4117-7158
유치곤장군보존회	김영오 010-8592-8804	-
순직조종사부인회	송우영 010-9020-8358	박종희 010-4021-3616

지 회	회 장	사무국장
광주시지부	손정문 010-3601-3899	김승식 010-3603-0724
대구지지부	남상석 010-3080-6432	정규채 010-8206-7712
대전지지부	김호중 010-5409-6881	신두철 010-3141-2207
부산지지부	김선호 010-3590-2852	김경태 010-5071-2286
인천지지부	최용주 010-9855-2930	윤양로 010-7749-7668
제주도지부	강영환 010-3939-9000	김상헌 010-9687-4312
강릉지지회	황용기 010-8277-5402	김광종 010-5061-8541
경주시지회	정진표 010-8364-3060	유시현 010-6511-0006
군산지지회	반영곤 010-5173-2975	장도규 010-5687-9924
군위군지회	은헌기 010-9460-1068	조임식 010-3441-7527
김해지지회	제해언 010-4560-0622	
동두천지회	김정수 010-5036-5133	김인국 010-8722-5831
문경지지회	한상식 010-5769-4355	김동성 010-9795-4210
사천지지회	박갑용 010-9676-1907	문상경 010-6579-0220
서산지지회	홍만진 010-6422-9440	도임구 010-5081-7799
성남지지회	박문석 010-3768-1234	안제성 010-3631-0120
수원지지회	송요정 010-3319-3744	이혁재 010-4678-4065
속초지지회	권영화 010-3722-1777	김창혁 010-4314-0891
아산지지회	정순웅 010-5422-6945	이석중 010-8505-9802
영월지지회	장호근 010-5363-0748	이종구 010-8901-4827

양평군지회	김수영 010-2771-2772	김재학 010-3011-9693
영주시지회	허기영 010-3840-8381	석두환 010-9076-9002
이천시지회	한상욱 010-3485-9678	김기창 010-4760-8217
익산시지회	최병훈 010-2686-6111	차경수
예천군지회	양찬모 010-9191-8949	조원희 010-3548-0584
의왕지지회	이석우 010-5245-4639	이병래 010-8721-2984
원주시지회	김구식 010-4937-5110	이상인 010-5071-5151
전주시지회	오정수 010-5641-3496	윤한호 010-3676-9523
진주시지회	오기호 010-2207-9017	강석동 010-3872-4292
창원지지회	이성배 010-3566-6123	조진형 010-4879-9089
청주시지회	이균신 010-3576-9626	한일민 010-7774-3191
충남서부지회	조봉환 010-2253-7113	이선백 010-3029-3523
충주시지회	조동주 010-8441-1200	호용기 010-5078-7656
철곡군지회	이진권 010-3503-0321	장병찬 010-8584-7070
철원군지회	구한서 010-6372-9332	임연재 010-5352-5381
포천시지회	신건영 010-5365-5647	하명균 010-8830-3816
평택지지회	왕관현 010-5256-0188	이중혁 010-2363-3621
화천지지회	김철준 010-6276-9889	이영수 010-8891-1393

### △해외지회

지 역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미국 조지아	백남오	770-622-9227	
미국 덴바	김봉희	303-750-7476	
미국 샌디에고	이세중	760-845-128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김영본	919-946-6614	af66809@hotmail.com
미국 시카고	이근호	847-439-1168	
미국 뉴 욕	임재빈	201-233-6622	
미국 워싱턴	한수웅	301-806-2976	suhan317@yahoo.com
미국 L A	심인태	213-700-2566	intaishim@hanmail.net
미국 필라델피아	서장석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두용	510-745-7874	
미국 하와이	장재혁	808-947-7582	9477582@gmail.com
캐나다 동부	위정남	647-802-9981	
캐나다 서부	홍창의	604-463-4129	
브라질 상파울로	박승문	5511-222-9325	
아르헨티나	전영표	11-4632-8139	
호주 시드니	윤석효	0417-049-722	

## ■ 공군발전협회

△회원자격 : 기관, 단체, 기업체 및 대한민국 국민(성인)

### △회원구분

구분	자격	회비	
정 회 원	연 회 원	연간회비 납부자	3만원(매년)
	평생회원	평생회비 납부자	30만원(1회)
	후원회원	후 원 금 납부자	제한없음
단체회원	기관, 단체, 기업체	약정금액	
명예회원	이사회에서 위촉한 자	없 음	
일반회원	단체회원의 구성원	없 음	

### △가입절차

- 공군발전협회 홈페이지(www.arokaf.co.kr) '회원이입' 클릭 후, 안내화면에 따라 가입
- 공군발전협회 소정 양식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우편 또는 FAX 발송

### △회비납부

-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6-301-276447 (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국민은행 485501-01-339123(예금주/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 △회원혜택

- 본회의 정기회지(신문/책자) 투고 및 구독
-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선별적 참가)

## ■ 문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태성관2층) 06944
- Tel(02)825-8461~2, 811-1412 / Fax(02)825-8460 (군)923-7590, 923-7541
- E-mail / kafva-airforce@naver.com